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혹서기 배달파트너 안전보건 강화 아이스커피 13만개 지원

2025. 7. 22.



- 무더위 식혀줄 전국 단위 사용 가능한 아이스커피 교환 쿠폰 13만여 개 지급
- 배달파트너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국 28개 쉼터에 생수·이온음료·포도당캔디 등 제공
- CES, 여름철 온열질환 캠페인 통해 생수 쿠폰 누적 166만여 개 지급 "파트너 지원 지속할 것"

2025. 07. 22.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혹서기를 맞아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스커피, 생수·이온음료, 여름철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우선 22일 전국의 배달파트너들이 혹서기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컴포즈 아이스커피 교환 쿠폰 13만여 개를 지원한다. 아이스커피 쿠폰은 배달 활동 기준을 충족한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생수·이온음료·포도당 캔디·쿨마스크·넥쿨러 등 무더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물품을 28개 쉼터에 지원한다. 쉼터 지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창원·김해 등 지방 도시까지 포함된다. 배달파트너는 누구나 쉼터를 자유롭게 방문해 지원 물품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쉼터 위치는 쿠팡이츠배달파트너 앱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CES는 배달파트너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유용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무더위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생수 쿠폰 지원도 지난 2022년부터 누적 166만여 개 규모에 달한다. 폭염과 폭우 시 사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무상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 행사'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정비 전문가의 체계화된 정밀 점검으로 이륜차 주요 고장 원인을 사전에 진단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배달파트너들이 여름철 운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름철 폭우 및 폭염 안전수칙'과 주요 기상상황에 대해 배달파트너 앱에

서 상시 안내하는 등 전방위적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혹서기에도 배달파트너들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지원책을 마련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